

쇼카손주쿠는 1842년부터 1892년까지 사설 학교로 운영된 일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학교 중 하나입니다.

1857년부터 1년간 요시다 쇼인(1830~1859)에게 수학한 92 명의 문하생 중 2 명이 수상을 역임하고, 이외에도 수많은 문하생들이 고위 관직에 오르는 등, 이들 대부분이 메이지 시대(1868~1912)의 근대화된 일본을 탄생시키는 데 공헌했습니다.

조그마한 사설 학교가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끼치게 된 이유는 요시다 쇼인의 리더십에서 기인합니다. 1830년에 하급 무사 집안에서 태어난 쇼인은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어려서부터 농사를 돕고 아버지에게서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이처럼 실천을 수반하는 배움은 쇼인의 교육 방식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1854년, 쇼인은 막부에 개항을 요구했던 미국 해군의 매슈 페리 제독이 이끄는 ‘흑선’에 오르려다 실패하면서 고향인 하기로 송환되어 자택에 유폐되었습니다. 쇼인은 아편 전쟁에서 중국 청나라가 패배한 것을 알게 되었고, 서양의 높은 기술력을 실감하며 일본이 자국을 지키려면 기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근대화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쇼인은 고향인 하기에서는 이미 교육자로 유명했는데, 유폐된 이후 작은 방에서 시작한 혁신적인 강의는 좋은 평판을 얻게 되면서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쇼인은 쇼카손주쿠에서 일본과 중국, 서양의 지적인 전통을 인용하면서 전술과 철학, 역사, 농업 등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된 목표는 사회적인 신분에 관계없이 사회에 공헌하는 방법을 문하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쇼인은 교토에서 발생한 로주(에도 막부의 최고 관직) 암살 계획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에도(지금의 도쿄)로 소환된 후 투옥 끝에 처형되었지만, 쇼인의 야심과 이상은 문하생들에게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